

나도 전법사

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 밝히옵니다

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
세상 온갖 생명들과 함께
깨달음의 길을 걷겠다는
불자들의 서원을 여기에 담아 봅니다.

